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기업지배구조, 환경문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가능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합니다.

- 한국적 경영상황에서 기업의 장기성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종목 발굴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45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1년 04월 02일)

- 클래스 C-E : 2016년 09월 07일
- 클래스 C-F : 2005년 06월 07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P : 2017년 11월 14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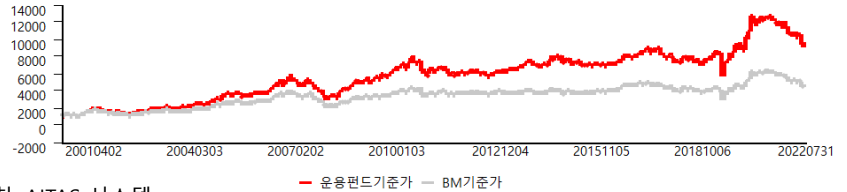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4.04%	-8.24%	-9.51%	-21.25%	11.67%	33.92%	22.24%	866.75%
클래스 C-E	3.92%	-8.60%	-10.19%	-22.42%	8.49%	28.25%	13.69%	25.43%
클래스 C-F	3.98%	-8.43%	-9.86%	-21.85%	10.03%	30.97%	17.79%	255.96%
클래스 C5	3.89%	-8.67%	-10.31%	-22.63%	7.92%	27.21%	12.20%	27.77%
클래스 S-P	3.97%	-8.47%	-9.93%	-21.97%	-	-	-	8.57%
벤치마크	5.10%	-9.04%	-7.95%	-23.45%	8.99%	21.09%	2.03%	368.5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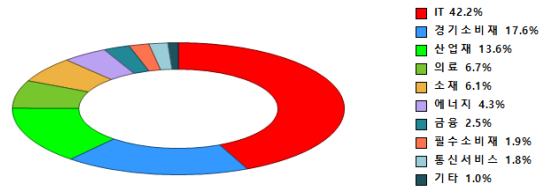


자산 구성 현황 (2022년 07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2년 07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9.7
현대차	운수장비	5.3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4.6
삼성SDI	전기,전자	3.9
SK하이닉스	전기,전자	3.7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3.7
현대글로비스	운수창고	3.4
LG화학	화학	3.3
SK이노베이션	화학	3.1
기아	운수장비	3.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E : 총 연 1.46% (판매 0.75%)
- 클래스 C-F : 총 연 0.74% (판매 0.03%)
- 클래스 C5 : 총 연 1.71% (판매 1%)
- 클래스 S-P : 총 연 0.91%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645%, 신탁 0.05%,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7월 KOSPI는 전월 대비 5.10% 상승한 2,451.50pt, KOSDAQ은 7.80% 상승한 803.62pt로 마감하였습니다. 6월에는 미 연준의 긴축 정책 강화와 급격한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며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하였고, 유가를 비롯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FOMC에서 75bps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이는 시장에서 유가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과 긴축 사이클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며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이 견조한 수출과 원화 약세 등의 요인으로 선방함에 따라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 2차전지 관련 업종, 자동차 부품, 엔터, 의약 업종이 상승하였으며 조선, 정유 등 에너지 관련 업종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훼손이 확인된 건설 업종이 부진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중순까지 약세 흐름을 보이며 1,326원까지 상승하다 원화 강세로 전환되며 1,299원 수준에 마무리되었습니다. WTI 기준 국제 유가는 98.62달러를 기록하며 긴축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전월 대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동기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약 1.8조원을 순매수하였고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1.7조원, 1000억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당월 매매는 실적 변동성이 증가한 화학, 섬유·의복, 기계 업종과 기존에 방어적인 역할을 충분히 한 통신업종을 차익 실현하여 하반기와 내년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2차전지, 미디어/엔터 및 자동차/부품 업종과 낙폭과대 성장주 중 성장 가시성이 높은 인터넷 업종에서 선별적으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자동차, 조선 업종에서의 종목선택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화학, 인터넷, 의약 업종에서의 종목선택 효과가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하반기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현대차와 2차전지소재 핵심 경쟁력과 확장성을 보유한 LG화학과 북미공장신설 결정으로 성장 가시성이 높아진 삼성SDI가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의 풀리실리온 가격 강세 제한 개입 가능성으로 조정받은 OCI와 풍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 발표 지연과 실적 부진으로 조정받은 씨에스윈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수급 우려가 해소되어 반등한 LG에너지솔루션을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시장비중보다 적게 보유했던 점이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8월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한 급격한 금리 상승 기조에서 실물경기 흐름 및 물가 상승세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변화가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일방적인 긴축 가속화 흐름에서 중립적 기조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단초라고 판단합니다. 단,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성장 모멘텀은 일부 둔화가 불가피하며 지역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고용 시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지정학적 위험 및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국가 경쟁력 약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고,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어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의 실시로 일부 완만한 회복을 전망합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경기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흐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나 낙폭과대 따른 저평가 매력과 2분기 실적 시장 우려 대비 선방함에 따라 대형주의 저평가 매력에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고, 과거와 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은 아니므로 테마적인 흐름보다는 이익 턴어라운드 기반한 선별적 흐름의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6월과 7월의 자이언트스텝과 빅스텝 이후 연준의 2023년 점도표는 3.8%로 추가 예상 금리 인상폭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폭의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 및 강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보며 연준의 경기 둔화는 인정하나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스탠스는 시장이 다소 안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연준에서 견조하다고 보는 고용 부문에서 신규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7-8개월내 최고치로 상승하여 향후 고용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의 침체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20% 이상 조정 받은 KOSPI 대비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폭은 적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환율, 수출 물량, 원자재 가격, (친환경) 정책적 지원 등과 같은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OSPI 할인율은 12.1%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12개월 예상 PBR이 0.8x로 밴드 하단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큰 폭의 이익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 한 valuation상 하방 경직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불확실성 매크로 상황에서 기업별 이익의 방향성에 주목할 계획입니다. KOSPI는 평균적으로 12개월 예상 순이익의 방향성에 3개월 정도 선형함을 감안하면 4분기와 내년 이익 회복 여력 보유 기업 선별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실적과 내재가치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시장 이익에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이 실적 반등 시기와 그 보다 선행할 주가 반등 시기 감안 시 선제적인 비중 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최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표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폭과대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 가시성이 높으며 valuation이 부담스럽지 않아진 종목들의 비중 확대 기회도 점진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비재무적인 체력의 개선이 재무성과와 주가 가치 상승으로 연결된다면 믿음의 갖고 기업의 장기적인 기회와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ESG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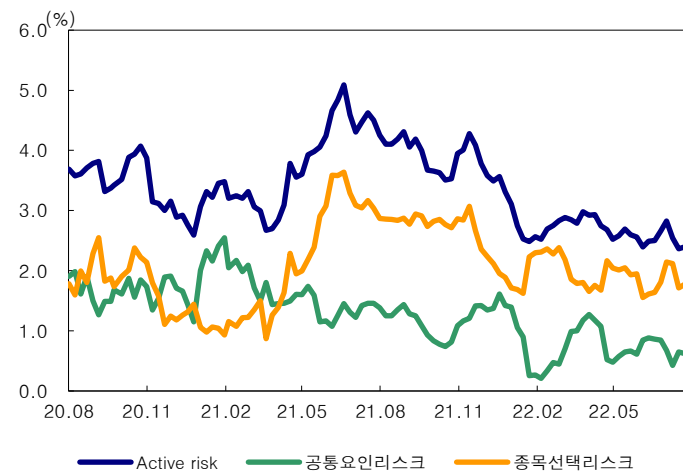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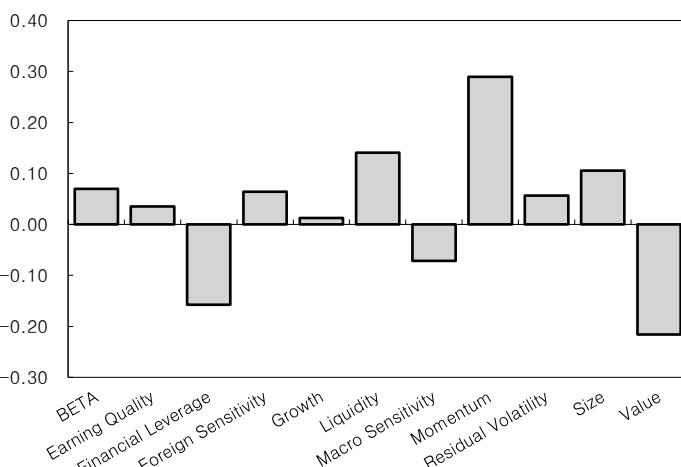
	2022-07-29	2022-06-30
Active Risk ¹	2.40%	2.56%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0.62%	0.84%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0.14%	0.11%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48%	0.72%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1.77%	1.72%
베타	0.89	0.94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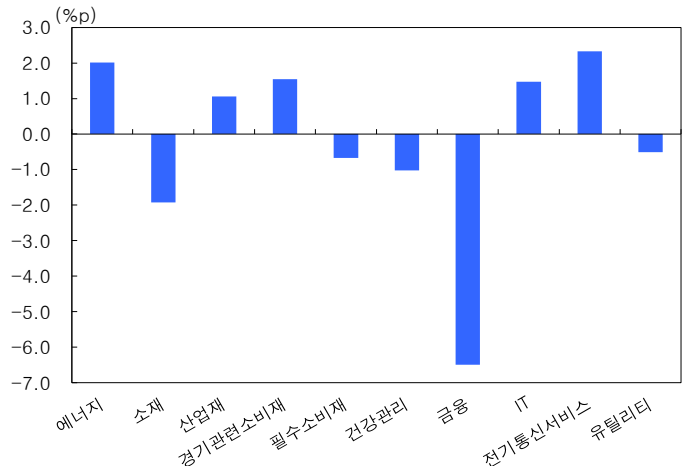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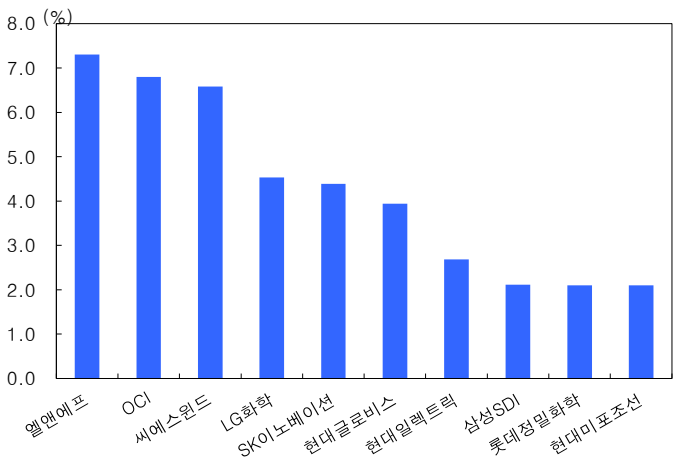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7월말 현재, 지속성장기업증권[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2.4%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3개 종목 감소하여, 60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전기통신서비스', '경기관련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산업재', '에너지'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6월말 기준으로는 'OCI'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현대미포조선'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